

해빙기로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, 주변 지역 점검을 통해 자칫 지반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슬기로운이 필요한 때이다.  
또한 운전자의 경우, 춘곤증으로 피곤을 많이 느끼고 졸음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여서 졸음운전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, 적절한 운동과 피로회복으로 안전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.

## 에어차이나 추락사고



### ■ 사고개요

2002년 4월 15일 오전 11시 22분경 에어 차이나(AIRCHINA · 중국국제항공공사) 소속 CCA-129편 보잉 767-200 여객기가 김해 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45km 떨어진 경남 김해시 지내동 동원아파트 뒤편 신어산(해발 640m) 기슭의 돛대산(해발 237m) 정상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155명(한국인 136명과 외국인 19명) 및 승무원 11명 등 총 166명 중 128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.

### ■ 사고원인

사고기가 김해공항 활주로 남단을 향해 접근하다 갑자기 불어닥친 남서풍으로 착륙 시기를 놓친 뒤 북단 방향으로 우회해 착륙하려다 선회 지점을 잘못 잡아 산에 충돌

### ■ 문제점

- 기장 경력이 1년에 불과해 정상적인 착륙조건이 아닌 악천후 등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경험 부족
- 김해공항 선회 착륙 경험이 없는 기장의 악천후시 선회 착륙 시도

### ■ 교훈 및 대책

악천후시 항공기의 착륙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요구됨.

## 남한강 버스 추락사고



### ■ 사고개요

1996년 4월 3일 17시 25분경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308번 국도상에서 시내버스가 과속으로 달리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덤프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무리한 핸들조작으로 약 30m 절벽 아래 남한강으로 추락하여 2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.

### ■ 사고원인

안전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여야 하나, 과속(70~80km)하여 앞에서 오는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됨.

### ■ 문제점

- 평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 미흡
- 편도 1차선에 커브길이며, 저수지로 이어지는 절벽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속도를 유지해야 하나, 과속에 따른 방어운전을 하지 못한 데서 발단됨.
- 커브길의 방심 운행

### ■ 교훈 및 대책

-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실시와 운전자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하였던 승객의 행동 자제가 요구됨.
- 실종자 수색 및 차량 인양작업 등의 사고수습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수난사고 구조인력 및 장비의 확보와 보강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.

##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



### ■ 사고개요

1995년 4월 28일 오전 7시 50분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교 사거리 지하철공사장에서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공사를 위한 그라우팅 천공작업 중 100mm 도시가스관이 파손되어 유출된 가스가 하수관을 통하여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, 상당시간 체류후에 원인미상의 화인으로 점화·폭발하여 101명이 사망하고 20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.

### ■ 사고원인

도로굴착작업시에는 해당 관청의 도로굴착 승인을 득한 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, 무허가 굴착작업을 하던 중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중압배관을 관통하여 다량의 가스가 분출, 지하철 공사장 현장으로 유입되어 폭발함.

### ■ 문제점

- 무허가로 도로굴착작업 실시
-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
- 도로굴착작업시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체제 미흡
- 중장비 기능공의 가스안전에 관한 이해 부족

### ■ 교훈 및 대책

- 도로굴착작업에 대한 허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서 첨부시에 승인(50m이상 도로굴착시)하고, 도로굴착작업 및 되메우기 작업시는 관련 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가스배관 30cm정도의 인접 작업은 원칙적으로 인력작업을 실시하여야 함.
- 중장비 기능공 등 굴착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.

## 논산 정신병원 화재사고



### ■ 사고개요

1993년 4월 19일 새벽 2시 25분경 충남 논산군 논산읍 부창리 소재 정신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병원 건물이 소실되고 수용 중이던 환자 등 3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.

### ■ 사고원인

담배불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

### ■ 문제점

- 건물구조상 조립식 패널 건물로 내장재가 합판 및 스티로폼 등으로 단열시공되어 있고, 반자와 지붕사이가 빈 공간으로 화재발생시 급속히 연소확대될 수 있는 구조
- 화재발생 건축물은 소규모 대상물인 건축허가비동의 대상으로 사전예방활동 사항이 없었음.
- 입원환자들의 탈주 및 발작에 대비하여 양쪽 발목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, 철재 출입문을 밖에서 잠가놓아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하였음.
- 피해건물은 수용적정 인원이 19명이었으나, 환자(정신병자 및 알콜중독자) 42명을 수용하여 적정인원의 2배가 넘는 과다한 수용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음.

### ■ 교훈 및 대책

-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시에는 방마다 완벽한 내화구조로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불연재를 사용하여 내장
- 건축허가비동의 소규모 대상이라도 노유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사전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출입구에 시건장치의 설치가 불가피한 수용시설의 경우 외부에서 손쉽게 파괴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. 

〈자료제공 : 안전협회 서울동부출장소장 조영수〉